

## 의욕상실증을 겪고 있는 부인의 가족치료

박 태 영\*

### 1. 서 론

본 사례는 1997년 3월부터 1988년 5월까지 총 16회 진행되었으며, 아들과 어머니의 문제로 인하여 의뢰된 사례로서,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에게 많은 잔소리와 간섭을 하고 있는 사례이다.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아들은 어머니와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에 비하여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어머니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족구조를 보았을 때, 어머니는 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들은 아빠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부부관계를 보았을 때, 두 사람은 전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녀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즉, 이 가족은 부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두 개의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부인은 집안에서 남편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 의욕상실증을 겪고 있었으며, 남편은 늘 직장 생활로 인하여 밤늦게 귀가하고 과음하는 버릇이 있었다. 상담을 받을 당시에는 남편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예로 수전증과 식은 땀 및 열이 나기 시작하였다.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도 그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아들을 통하여 부모의 부부관계를 질문하였더니,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할 것 같다고 불안해했고, 딸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며는 어머니와 자주 싸움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분위기는 아들의 그림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그 그림을 분석하자면, 어머니와 아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조교수

버지가 거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자녀들은 부부 사이에서 놓여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 옆에, 딸은 어머니 옆에 놓여 있었다. 또한 아들은 집안에서 늘 긴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치료 초기에는 자녀문제에 초점을 두었고, 그 이후에는 주로 부부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특히 신혼 초에 시부모와 같이 살아오면서 두 사람만이 함께 할 시간이 없었고 성적으로도 불만족스러웠던 면과 더불어 강도 침입으로 인하여 시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건 등을 통하여 부부간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법에 초점을 두어 치료를 진행하였다. 치료가 거의 종결될 당시에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치료의 효과는 아들의 그림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즉, 치료 초기에 그렸던 아들의 그림과 비교하여 부부간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림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머니가 자고 있던 모습에서 아버지 옆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두 사람의 거리감에서도 부부가 가장 가까운 위치로 변하였다는 모습과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자녀체계의 경계선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따라서 약 1년 2개월간의 가족 치료는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5회의 상담을 마지막으로 이 사례는 종결하였는데, 1년 뒤인 1999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클라이언트 어머니가 손수 만든 종이꽃으로 장식한 액자를 선사하였다.

### 1회(1997. 3. 19) 클라이언트: 민수 어머니(M)

T: 아드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M: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제가 강하게 하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제가 받아줄 때도 있 어요. 민수는 아직 어려서 걸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는데, 요즘에는 제가 아이를 붙잡고 시키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틈을 주지 않아요. 이전에는 보험 회사를 다니느라 집에 없었거든요.

T: 직업을 가지신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M: 9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96년 11월에 그만 두었어요. 애를 그냥 두니까 혼자 알아서 할 생각을 안 해요.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를 갖는 일에는 부지런해요. 일요일 아침에는 다 늦잠을 자도 혼자 일찍 일어나서 만화영화를 보거든요. 학교에 다니거나 공부하는 일에 전혀 흥미가 없어요. 주위에서 강압적으로 하니까 해야되는구나 생각하지요.

T: 엄마와의 관계는 어때요?

M: 딸과 같지는 않아요. 딸과는 한마디만 해도 서로의 마음 상태를 아는데 아들은 좀 엉뚱해

요. 아들은 나와 성이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엄마로서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T: 그러면 딸과 아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M: 저와 남편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제가 딸을 더 내세워서 아빠와의 관계를 좋게 했어요. 딸도 제 의도를 잘 따라서 싹싹하고 예쁘게 굴어서 아빠가 딸을 예뻐하죠.

T: 민수와 아빠의 관계는 어떤가요?

M: 민수는 아빠와 대체적으로 맞고 딸은 저하고 맞아요. 아빠는 민수에게 상당히 너그려 워요.

T: 민수에 대하여 엄마, 아빠의 견해가 다르군요.

M: 네, 그래요.

여기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2개의 삼각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아들과 아빠, 그리고 딸과 엄마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더불어 아들과 아빠 및 엄마와 하나의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딸과 엄마 및 아빠의 또 다른 삼각관계가 보여진다.

T: 민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M: 거의 안 해요.

T: 그럼 민수 어머님과 부모님과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M: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저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민수를 키우는 것과 엄마가 저에게 했던 것이 비슷해요. 민수를 키우면서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소극적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여장부였어요.

T: 경제적으로는 어떠셨나요?

M: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부유했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는 경제적으로 골목이 있었죠.

T: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M: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성격이 직선적이셔서 화가 나면 제가 무섭게 벌을 썼어요.

T: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M: 연년생으로 셋인데 제가 장녀예요. 아버지는 엄하셨지만 굉장히 가정적이셨어요. 집에 항상 일찍 오셨고 먹을 것도 사오셨어요. 휴가 때에는 가족들과 여행 다니시고 외식도 하고 가정적이셨는데, 그런데도 저한테는 무섭고 엄한 분이고,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둘째는 아들이라 듬직해서 이쁘고, 막내는 똑똑하고 야무져서 예쁘고, 저는 장녀로서의 기대감에 어긋나게 자랐나봐요. 셋이 싸우면 항상 제가 야단맞았어요.

T: 어머니와의 대화는 어땠습니까?

M: 결혼 전에는 매끄럽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느껴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와는 대화가 없었죠. 항상 일방적이었죠. 어머니가 애정표현을 못했어요. 결혼 전에는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나중에야 우리 삼 남매 중 저를 제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려 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대화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기분이 나쁘시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세요.

T: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M: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성실하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어요. 저돌적이고 성실하고 환경도 더 나왔고 믿음도 가서 좋아하진 않았지만 결혼했어요. 요즘에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면 힘들 때 극복할 수 있었을 테고 아니면 철이 좀 든 후에 결혼했으면 결혼생활이 좀 더 수월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시집살이를 5년 했어요.

T: 시집살이하시는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M: 그렇죠.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철이 든 것 같아요.

T: 신혼 초의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M: 좋을 리가 없죠. 시댁에 처음 들어가는데 소가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특별한 집이었고 특별한 부모님이라 생각보다 살벌했어요. 시집살이 5년 동안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걸 모르더라구요. 시집 식구들이 너무 이기적인데, 시집식구들 중에서도 제일 살벌하고 무서운 사람이 남편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남편은 착한 편이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에요. 신혼 때에도 남편은 항상 늦게 들어왔고 저는 시부모님 두 분 모시고 살았죠.

T: 대화하실 시간도 거의 없으셨겠네요?

M: 없었죠. 요즘은 일찍 들어와도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남편도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T: 알겠습니다. 중요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2회(97. 3. 24), 클라이언트: 민수 어머니(M)

T: 지난주는 민수와 어떠셨어요?

M: 민수가 너무 애기같고 진지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대화가 잘 안돼요. 저하고는 취미가 안 맞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빠하고는 잘 맞는 편이에요.

T: 전에는 민수와 어떻게 대화를 하셨어요?

M: 생각해보니까 민수와 대화를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었죠.

민수가 커서는 함께 공유할 만한 게 없었어요. 제가 민수를 제재만 한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욕심이 많은데 돈에 자주 손을 댔어요. 한 번은 아빠 지갑에서 10만원을 가져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장난감을 사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너 이제부터 장난감을 네 일생에서 지운다” 했죠. 다음에 한 번 또 그러기에 속상해서 울면서 타일렀죠. 그리고 나서는 알아듣고 돈에 손대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T: 그 나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M: 그건 알지만 민수가 큰 아이만큼 주관이 뚜렷하지도 않고 너무 인간적이고 착하기 만 해서 오히려 걱정이예요. 그래서 충격요법을 쓴 거죠.

T: 아이한테 정신적인 충격이 됐을 수도 있겠군요.

M: 그렇죠. 장난감 살 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돈 쓸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T: 그거야 겠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겠죠. 어떻게 보면 아이의 마음이 닫혔을 수도 있죠.

M: 상처를 입었기도 하겠지만 큰 교훈이 되었다고 봐요.

T: 민수 어머니께서는 가족관계나 친구관계에서 원만하십니까?

M: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는 말을 다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가정의 불화는 얘기 안 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모가 좀 낫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엄마는 너무 예민하고 아빠는 너무 무디대요.

T: 두 아이가 다툰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M: 작은애가 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작은애를 제지시키죠. 애 아빠는 신경이 무디니까 나중에 한 번씩 화를 내죠. 애 아빠가 화내기 전에 제가 미리 해결을 시키죠. 그런데 애 아빠는 그런 날 보고 더 뭐라고 해요.

T: 그런 것에 대해서 두 분이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M: 애 아빠가 저랑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하기가 싫은 건지 할 줄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T: 그럼 부부 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불만 쪽을 0에 놓고 만족을 10 이라고 하면 대략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 2-3 정도?

T: 남편은 어떻습니까?

M: 제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체념한 거죠.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잘 안 들어 줘요. 나는 하느라고 해도 받아들여주질 않으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체념해 버리는 거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요. 헤어지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못마땅해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크고 괜찮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살아요. 제 이야기는 잘 안 들

어주는 것 같아요.

T: 그러면 민수 어머니는 남편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입니까?

M: 저는 남편을 존경하는 면도 있고, 큰 문제는 남편이 결정하고 나는 따른다는 봉건적인 사고관념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남편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내 멋대로다, 버릇없다, 거칠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원래 피곤한 성격이었고 또 목소리가 커요. 그게 단점이에요. 저는 사회생활을 통해 많이 원만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애 아빠는 아직도 제가 못마땅한가 봐요.

T: 괜찮으시다면 성관계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시겠어요?

M: 전혀 안 해요. 각 방 쓰고 있는지 한참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걱정이 돼요.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어요. 신혼시절에 시집살이하면서 둘이 있을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집안 일을 하다보니 둘이 오붓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성에 관해 농담하고 이야기하는 게 싫어요.

T: 혹시 불감증을 갖고 계십니까?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M: 애정을 못 느끼니까 어쩌다 불일만 보고 끝나는 것 같으니까 불감증이 돼요.

T: 애정과 성적인 문제가 상관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결혼 초에는 오르가즘을 느끼셨습니까?

M: 그런 건 몰랐죠. 신혼 땐 좋았지만 만족하진 못했죠. 항상 아쉬운 상태로 끝났으니까요. 그래도 애정을 느끼고 좋은 느낌으로 했는데, 남편이 좀 세심한 성격이 못되고 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빨리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밤잠도 잘 못 자요. 본인이 충동적으로 불일만 보고 끝내버리니까 전 애정을 못 느끼고 기분도 안 좋죠. 더구나 요즘은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애 아빠 방에 이불만 깔아주고 저는 따로 자죠.

T: 안 좋았던 일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M: 주로 금전 문제예요. 저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모아서 큰돈을 만들려는 스타일이고 애 아빠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살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혼 초부터 문제였어요. 저는 검소하게 살아서 내가 안 쓰면 모아질 줄 알았는데 남편이 용돈을 많이 쓰니까 돈이 안 모아져요. 저는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저도 상당히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이 상태만이라도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T: 이 상태만 유지되면 좋겠지만 언제 문제가 더 악화될지 모르잖아요. 가정이지만 부부 관계가 떠 있는 상태죠. 아이들의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데...

M: 애 아빠도 백 일만에 생모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고모 밑에서 자라고 7살에 계모가 들어왔대요. 그래서인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에

서 자라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냥 유지하면서 사는 거죠.

T: 그런 얘기를 서로 티놓고 이야기 해보셨나요?

M: 느낌으로 알죠. 저번에는 갑자기 집에 오더니 휴가를 얻었으니까 빨리 놀러 가자고 해요. 그래서 애들은 학교에 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가면 안되냐 했더니 애들 없이 무슨 재미로 가냐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들만 보고 살 듯이 애 아빠도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가 멀어졌어요. 아이들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요. 이 상태라도 유지해서 아이들을 키워서 출가시키고 싶어요. 애 아빠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 남편도 저와 비슷한 환경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된 것 같아요.

T: 남편이 계모 밑에서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M: 7살 때 계모가 들어와서 살다가 부모님은 서울로 가시고 중고등학교 때 합친 것 같아요.

T: 어떻게 사셨군요. 어머니 정과 할머니 정은 다르거든요.

M: 그래서 남편이 표현을 못하고, 저를 못 받아주는 건가요?

T: 어머니가 계셨어도 신체적 접촉이나 애정 면에서 결핍된 경우에는 결혼해서도 표현을 잘 못해요.

M: 제가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참 좋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과 남편을 밖에서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이 막내형이라 자신을 받아주기만 바라는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이 받기만 원했던 것 같아요.

### 3회(97. 4. 2), 클라이언트: 민수어머니(M)

T: 민수 어머니께서는 남편과 현재 이 상태를 원하십니까, 이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향상되시길 원하십니까?

M: 남편과의 관계가 향상된다는 데에 희망이 안가요. 남편이 제게 “할 얘기가 있는데…”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부담되고 겁이 나서 목욕탕에 숨었어요.

T: 무엇 때문에 부담스러우셨습니까?

M: 모르겠어요. 미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안보고 말 안하고 살고 싶어요. 저한테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조금만 속상해도 절망감이 들고 하루종일 이불 뒤집어쓰고 자요. 그게 좀 심해요. 그렇게 숨어 있을 때가 편안해요.

T: 부부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M: 도화선은 시대관계였어요. 다음은 돈 관계였구요, 세 번째는 성격차이 같아요.

T: 결혼 초에는 대화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M: 처음부터 안됐죠. 결혼 전이나 후에도 주로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구요. 나 혼자 떠드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자기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T: 그럼 남편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겠네요?

M: 많죠. 그게 불만이예요.

T: 남편은 누구와 얘기를 하나요?

M: 술 먹으면서 친구들과한테 하겠죠. 친구관계는 좋아요.

T: 오늘은 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클라이언트 어머니는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에 대하여 자신을 1년간이나 속여왔다는 것과 돈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자신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자신은 남편에게 많은 양보를 하였지만 남편은 자신에 대하여 전혀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M: 자기 회사에 상여금이 없다고 1년이나 속였어요. 그러면서도 아버님한테 돈을 빌려 쓰더라고요. 재작년에 제가 카드를 빼앗아서 월급을 관리해요. 그래도 약속을 잘 안지키고 용돈을 너무 많이 써요. 돈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회사를 쉬어야겠대요. 그런 문제로 밀고 당기고 해요. 나는 애 아빠한테 양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애 아빠는 못 고치는 것 같아요.

T: 요즈음 민수와 대화는 어떻습니까?

M: 대화는 거의 없어요. 민수가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정리도 잘 못하고 학교준비물도 잘 못 챙기니까 열등감도 느끼겠죠. 그래서 정리 정돈하는 습관부터 길러주려고 해요.

T: 다음 주에는 민수를 한 번 데리고 오시죠.

4회(97. 4. 14), 클라이언트: 민수(C1), 민수 어머니(M)

T: 민수는 지난 주말에 뭐하고 지냈니?

C1: 아빠랑 누나랑 학교운동장에 가서 달리기했어요.

T: 민수야 다음 번에 여기 올때 엄마, 아빠, 누나, 너가 집에 있는 모습을 좀 그려줄래?

C1: 네.

(클라이언트 어머니가 잠시 밖으로 나간다.)



T: 민수는 엄마한테 원하는 게 뭐지?

C1: 엄마가 저를 때리지 말고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갖고 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누나와 저를 제발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상을 탈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저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시는데 엄마는 거의 칭찬을 해주지를 않아요.

T: 민수야, 엄마 아빠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니?

C1: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T: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니?

C1: 제가 7살 때만 해도 그렇게 심하게 안 싸웠어요. 아빠가 아침에 옷 달라고, 돈 달라고 했어요. 9살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할머니가 깨진 화분을 쓸고 계셨어요. 엄마가 싸워서 이렇게 한 거구나. 이혼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요.

T: 집에 있으면 불안하니?

C1: 평소에는 안 그런데 싸우실 때는 그래요. 아빠나 엄마가 싸우시고 나서 아빠가 누나랑 나를 때렸거든요.

T: 아무 잘못도 없는데?

C1: 잘못은 했지만 다른 때에는 안 때렸거든요.

### 5회(97. 4. 22), 클라이언트: 민수 어머니(M)

민수가 그린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림 속에는 아빠와 엄마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엄마는 이불 속에서 자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엄마 아빠 사이에 두 자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민수가 등쪽에 오싹해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수 어머니 이야기로는 아들이 긴장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

T: 민수가 그린 그림을 보면 현재 가족의 역동성을 알 수 있죠.

M: 네. 온 가족이 다 빨빨이 흩어져 있는 걸 보고 저도 우리 가족 관계가 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T: 지난 1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M: 바쁘게 지냈어요. 학교에서 녹색 어머니회 회장을 맡았어요. 민수가 자신감도 갖고 굉장히 좋아해요. 민수가 상 한 번 타는 게 소원이었는데 글짓기 상도 땀고 엄마가 회장이 되어서 자부심도 갖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민수의 그림이 달라질 거예요.

T: 일주일 동안 달라진 것은 없나요?

M: 제가 학교생활에 매달리니까 민수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하니까 민수가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T: 엄마가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형제와 비교하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격지심 갖습니다.

M: 민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T: 지난주에 민수가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봐 불안해하는 걸 들으셨죠?

M: 예. 딸애도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엄마도 아빠 없이 커서 불편했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생각은 안 한다고 했죠. 아빠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얘기했죠. 아이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가깝게 지내지 않으니까 불편해 하죠.

T: 민수가 어머니한테 다섯 가지를 바라고 있어요.

(지난 4회 때 민수가 엄마에게 바란 5가지 1) 안 때리고 말로 했으면 좋겠다 2) 상을 탈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3)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해 줬으면 좋겠다 4) 누나랑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5) 엄마, 아빠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중요한 건 민수와 엄마가 원활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M: 민수가 대화를 안 하는 부분은 저한테 말해서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민수가 너무 수준이 어려서 대화가 잘 안돼요.

T: 지난주에 민수와 얘기해 보니까 민수의 판단력이 분명하고 의사전달이 분명했어요. 엄마 눈에 어리게 비춰서 어리다고 하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민수가 상을 굉장히 타고 싶어하던데요?

M: 저번에 과학 독후감에서 우수상을 탔어요. 제가 도와줬어요.

T: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칭찬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면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리고 민수가 엄마, 아빠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민수 아빠와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어머니께서 민수 아빠께 말씀을 드리시죠.

M: 민수 아빠가 저를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면이 있으니까 교수님이 직접 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T: 예 알겠습니다.

6회(97. 5. 20), 클라이언트: 민수 아버지(F)

T: 그 동안의 상담 과정에 대하여 부인으로부터 들으셨습니까?

F: 아니요.

T: 두 분께서 대화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주로 아이들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요.

F: 맞아요. 애들 둘이 매개체가 되고 있죠.

T: 민수와 한 번 상담을 했는데 엄마, 아빠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더군요. (민수가 그린 그림에 대하여 아빠에게 설명함) 제가 민수 아버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어서 자리를 청했습니다.

F: 결론적으로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거리감이 유지된 지 오래됐어요.

민수아빠는 신혼 초부터 부인과 대화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 일이 너무 바쁘고 은 회식으로 인하여 술자리가 많아지고 과음을 하는 버릇이 있어 때때로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부인과 함께 있었을 때 아버지가 강도에게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부인과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과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7회(97. 5. 24), 클라이언트: 민옥(민수 누나)(C2), 민수 어머니(M)

T: 요즈음 엄마, 아빠 사이는 어떤 것 같니?

C2: 좀 이상해요. 매일 말도 안하고 싸우고.

T: 그게 언제부터야?

C2: 5학년 2학기 때부터요

T: 지금 6학년 1학기니까 그럼 6개월 정도 넘었겠구나. 집에 있으면 마음이 어때니?

C2: 싫죠. 아빠만 있으면 싫어요.

T: 무엇 때문에 아빠만 있으면 싫으니?

C2: 금방 싸움날 것 같아요. 엄마 있으면 안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래요. 아빠하고엄마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T: 그럼 넌 아빠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니?

C2: 조금 이야기해요.

T: 엄마와 너의 관계는 어때니?

C2: 좋아요.

T: 엄마가 너를 많이 예뻐하시는 것 같더라.

C2: 예, 잘해주세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엄마가 싫어해요. 엄마하고 아빠는 말도 안

하고 툭툭거리요. 아빠는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시고요.

T: 매일 술 드셔?

C2: 거의 매일이요.

T: 너와 민수는 사이가 어떠니?

C2: 괜찮아요. 민수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T: 누나를 왜 좋아하는데?

C2: 놀아주고 모르는 것 있으면 도와주고 하니까요.

T: 그러면 민수와 엄마 사이는 어떠니?

C2: 엄마한테 거의 말을 안 하다가 요즘 조금씩 이야기해요. 3학년 때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나한테만 말했거든요. 요즘은 엄마한테도 조금씩 털어봐요.

T: 지금 그런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났다고 생각되니?

C2: 엄마가 학교 생활에 신경 쓰시고 나서요.

T: 그럼 한 두 달 사이에 민수와 엄마 사이가 많이 좋아진 거네? 너는 그 가운데서 질투는 안 느끼니?

C2: 아니요, 오히려 잘 됐어요. 사실 나한테 털어놓을 때 귀찮고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T: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지?

C2: 서로 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는 매주 금요일이면 외박하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우리 아빠.

T: 지금 아빠, 엄마가 여기에 같이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C2: 친하게 지내시라고.

T: 민수는 엄마 아빠가 헤어질 것 같아서 겁이 난다고 하는데 너는 어떠니?

C2: 그러실 것 같아요.

T: 이혼하실 것 같아?

C2: 아빠가 돈 많이 갖고 계시면서 엄마한테 자꾸 돈 달라고 하면서 못살게 굴고 그래요. 우리 아빠가 문제예요.

T: 너는 학교 생활 잘하고 재미있니?

C2: 예. 애들이 잘해주고 사이도 좋아요.

T: 아빠가 엄마와 싸울 때 때리신 적은 없니?

C2: 제 생각으로는 한 번 있었어요.

T: 어떻게 때렸는데?

C2: 따귀를 때렸어요.

T: 엄마가 어떻게 하셨어?

C2: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아파도 눈물도 안 나오고...

T: 지금 기분은 어떠니?

C2: 내가 말한 것을 누가 알 것 같아서 싫어요.

T: 그럼 너는 엄마, 아빠 관계를 얘기하는 게 싫겠구나?

C2: 다른 가족은 다 화목한데 우리 가족만 그래요.

T: 다른 가족도 다 행복하지는 않아. 너희 같은 가족도 너무 많아. 네 짝만 해도 엄마가 어디 도 망갔잖아. 너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 그리고 너희 엄마, 아빠만 이렇게 싸우는 것 같지? 너 친구들과하고 이야기해 보면 친구들도 많이 그래. 아빠가 엄마 때리고, 자식까지 때리고... 너 아빠한테 맞아 봤니?

C2: 예. 외삼촌 아들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해서 하지 말라고 소리지르니까 아빠가 어린애한테 왜 그러냐고 하시면서 때렸어요.

T: 민수는?

C2: 없을 거예요. 민수는 아빠를 많이 좋아해요. 아빠하고 항상 잠도 같이 자고.

T: 너는 엄마하고 자니?

C2: 아니요. 집에 방이 4개 있는데 아빠는 항상 민수 방에 가서 자요.

T: 엄마, 아빠가 이렇게 떨어져 지내신 지 얼마나 돼?

C2: 작년에 외할머니가 오셨을 때 아빠, 엄마가 같이 잔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T: 엄마 아빠가 5년 동안 방을 따로 쓰신 거야?

C2: 방이 많으니까요.

8회(97. 7. 19), 클라이언트: 민수 아버지(F), 민수 어머니(M)

T: 두 분께서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F: 글썽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재를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그 동안 제가 가족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고, 이제는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변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노력해야죠.

T: 민수 어머니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M: 모르겠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T: 민수 아버지께서는 한 10년 전부터 관계가 나빠지셨다고 하셨는데.

F: 예, 민수 엄마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T: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죠?

M: 딸이 아빠는 우리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딸애가 크니까 아빠에 대한 불만이 있나봐요.

T: 지금 가족보다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민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F: 글썽요,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거의 11시, 12시에 들어오니깐요. 토요일 격주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쉬는데 집에 별로 있지 않아요. 집에 있어도 잠만 자구요.

M: 어렵게 놀러가도 가족들 분위기는 안 망치려고 노력은 해요.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잘해줘요. 그런데 민욱이는 엄마는 친구 같고 좋은데 아빠는 불편하대요.

T: 민수 아버지는 지금 민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에 느끼셨습니까?

F: 잘 못 느꼈어요. 화를 안 낼 수는 없고 화를 낼 때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T: 민수는 아빠하고 사이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민수가 그린 그림을 분석해보면 아빠하고 민수 관계가 밀접하고 민욱이와 엄마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밀접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엄마, 아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께서 대화는 어떠십니까?

F: 최근에는 대화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해요.

T: 어느 정도인가요? 직장생활이나...

F: 그런 얘기는 전혀 안해요.

T: 지금 여기서 민수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시죠.

F: 지금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집에만 있지 말았으면 해요. 그렇다고 나가서 돈을 벌라는 말은 아니고 밖에서 세상 돌아가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게으르지만 이 사람도 너무 게으르거든요. 금방 고칠 수는 없으니까 운동이라도 같이 하러 다녔으면 좋겠어요.

M: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F: 일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T: 그리고 민수 어머니가 민수 아버지께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F: 서로 균등한 상황에 있어야 되는데 지나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급하게 쓸 일이 있을 때는 대부분 절박한 상황인데 이해를 못해요. 저에게 비자금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가장 화가 나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균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T: 민수가 그린 그림에서도 나타났듯이 민수 어머니가 매일 많이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민수 아

버지는 그 이유를 아세요?

F: 잘 모르겠어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했지만,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속상하니까 누워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죠.

T: 제가 보기에는 순간적인 도피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잊고서 주무시는 것을 최선책으로 삼으신거죠. 민수 아버님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F: 공백 때문에 대화가 서먹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도 말죠.

T: 신혼 때에도 대화가 안됐어요?

F: 진지하게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M: 진지하게 안 받아 줘요.

T: 민수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F: 일단 제가 제 처를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애들 옆에 있고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나는 내 일만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산 것 같아요. 제 처는 아마 그런 게 불만인 것 같아요.

T: 지금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전에는 부인이 이런 불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셨어요?

F: 그렇죠. 나쁘게만 생각했죠.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나,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너무 원색적이라는 생각을 했죠.

M: 제가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식이었고, 저는 이 방식 저 방식으로 표현을 해도 안되니까 화나게 되고, 나중에는 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피곤해"라는 한 마디예요. 제가 생활하면서 힘든 것을 남편에게 보상받고자 했는데 너무 철없던 생각이 있었어요.

T: 지난번에 민수 어머니께서 민수 아버님이 무슨 검사를 하신 게 굉장히 걱정되셨대요.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하시고 툭 쏘면서 말을 했대요. 그러한 표현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안되니까 나오는 표현이죠. 남편에 대해서 애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민수 어머니는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어머니는 남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애정이 있으시잖아요?

M: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T: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좀 해주세요.

M: 성실하고 차분하고 완벽하고 꾸준하고 그래요. 결혼 전에도 그런 부분을 보고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은 만족해요. 딸애가 그런 부분을 꼭 닮았어요. 민수는 그렇지를 못하고요. 그

렇지만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무너졌어요.

T: 민수 어머니는 감정표현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M: 저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랐는데도 표현을 잘해요.

T: 민수 아버님은 어머니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장하셨다고 들었는데요?

F: 어렸을 때 주변에서 상처를 크게 입은 기억은 없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정이 지금도 그렇지만 전혀 없었죠.

T: 가족관계에서 칭찬이나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으니까 일에 치중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부모와 정이 오고가는 게 없었던 것이 부부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M: 제 남편은 아이들에 대하여 알려 주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T: 그런데 지금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두 분이 마주 앉으셔서 직접 한 번 물어 보세요.

(두 사람을 마주 보게 하여 서로에게 말을 하도록 한다.)

M: 당신 나에 대해서 아는 것 있어?

F: 물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를 리가 있나.

M: 내가 결혼 전의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것 있어요?

F: 당신이 모르는 부분을 나도 알고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모님에게 원인이 있다는 생각도 했지. 다투고 나서 왜 저럴까 생각도 해봤지만 당신한테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야. 저는 표현력이 부족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 부인은 저와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기가 죽는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M: 표현을 하는 게 편하지 않나요? 나는 남편의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겠어요.

T: 그런 부분은 민수 아버님이 자란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누가 받아줄 사람이 있었어야죠.

M: 그럼 어떻게 해야되죠?

T: 민수 아버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F: 제가 얘기를 하면 편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요.

M: 얘기를 하면 저는 핵심을 말하는데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못 찾겠어요. '그냥 참고 안 보고 살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T: 일단 말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9회(97. 8. 2), 클라이언트: 민수 아버지(F), 어머니(M)

T: 그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 2주 동안 두 분 사이에서 어떤 변화는 없으셨는지요?

M: 제 딸이 그러는데 엄마와 아빠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네요.(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활짝 웃는다.)

(여태까지 상담 중 민수 어머니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웃어 보기는 처음이다. 지난번 남편과의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부부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

F: (약간 쑥스런 표정으로) 뭐 그리 대단한 변화는 없었어요.

M: 딸이 저에게 “엄마, 아빠가 엄마를 많이 사랑하나봐”라고 하더군요. 왜 그렇게 느끼냐고 하니, 요즘 엄마 아빠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만 그런 말하지 말고 아빠에게도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딸이 아빠에게는 직접 그 말을 못하고 아직도 아빠를 무서워해요. 어제 저녁에 아이들과 애 아빠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잠들었어요. 제가 더워서 선풍기를 틀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잖아요. 제가 너무 놀라서 화를 냈지요. 느닷없이 고함을 지르고서는 나보고 그냥 잠자코 있으라고 해요. 그게 말이나 돼요? 나도 소리를 지르게 되지요.

F: 사실 요즘 제가 회사에서 심각한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속은 고민으로 꽉 차있는데 아내한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선풍기를 확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 소리를 질렀지요.

T: 민수 아버지께서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부인에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F: 옛날부터 회사 일은 집에 와서 안 해요.

T: 그럼 부인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F: 별로 할 말이 없지요. 애들 이야기나 할까...

M: 저이는 옛날부터 저에게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항상 저만 혼자서 말 많은 여자가 되었지요.

T: 그럼 민수 아버님은 자신의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F: 주로 회사 동료나 직원들과 회사 이야기를 하지요.

M: 시집살이 살 때도 제가 남편을 위해 음식을 해놓으면 시부모님이 다 드시고 제 남편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 보지도 못했지요. 저이는 항상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집안에는 항상 아빠 없이 저희들만 생활을 했지요. 며칠 전에도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 낙지 전골을 해놓는다고 했는데 들어온다고 하더니 밤늦게 들어왔어요. 저 사람은 약속을 지켜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체념하고 살아요.

T: 민수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부인에게 전화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F: 갑자기 직원들하고 회식이 생겨서 저녁을 먹고 들어갔지요. 전화연락은 못했어요.

T: 그러면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모처럼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신다고 약속한 남편이 아무 연락 없이 저녁 늦게 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시지 않을까요?

F: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제 처도 가끔 제가 집에서 식사하려고 할 때 밥도 안 차려줘요. 내가 먹고 싶을 때는 시큰둥하지요.

여기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패턴과 또한 대응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여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을 때 남편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 및 분명한 의사전달을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남편이 집에서 부인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인에게 요청했을 때는 부인 또한 남편의 요구를 무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사람간의 대칭적인 관계(symmetrical relationship)가 15년간의 결혼생활에서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패턴이 유지되어 왔다. 또한 여기서 남편은 자신이 부인의 사랑과 표현을 받아들이는데 소홀했음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T: 그러면 민수 아버지께서는 요즘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및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물론 지나 부인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말 안 하시는 것이 낫겠지만, 회사의 내용은 사실 이 상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인에게 그러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한 선생님의 걱정을 어느 정도 부인과 함께 나눴으로써 많은 위로가 되고 부인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준다는 거지요.

F: 네. 사실은 2년 전부터 회사에서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는데 최근에 부장 두 사람이 회사를 그만 두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영향이 회사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남편은 부인에게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T: 제가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2주 동안 과제를 드릴 테니 민수 아버지께서는 가능하시면 회사 일을 부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부인은 그러한 남편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반응하시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F·M: 네, 알겠습니다.

10회(1997. 8. 17), 클라이언트: 민수 아버지(F), 어머니(M)

T: 민수 아버님은 2주 동안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부인에게 말씀 좀 해보셨습니까?

F: 자연스럽게 되어 되는데 잘 안 돼서 못했어요. 아직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T: 두 분이 2주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M: 없어요. 아이들 이야기 말고는 공통적인 화제가 없으니까요.

T: 민수 아버님도 2주 동안 전혀 대화를 안 나누셨습니까?

F: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죠.

T: 주로 어떤 대화였습니까?

F: 제 몸이 안 좋아서 기침을 했더니 담배피지 말라고 그리고, TV 보면서 서로 채널 보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어떤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한 적이 있고...

T: 예전이라면 언제죠?

F: 한 2-3년 된 것 같아요. 최근 2주 동안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T: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나 TV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F: 처가 저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서 고맙지요. 먹는 것도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해줘요. 그런데 TV 보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T: TV 때문에 싸우셨으면 그 동안 일찍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네요?

M: 항상 TV를 켜놓고 살아요. 남편이 2주 동안 일찍 들어오기는 했죠.

2주전 상담을 받고 난 후에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는 변화가 있었다.

T: 음주는 어떠셨어요?

F: 술은 조금씩 먹어요. 술 안 먹으니까 얼굴도 좋아지는 것 같고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T: 제가 볼 때는 술도 줄고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기용이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 좋기도 하고 그렇죠.

T: 애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M: 엄마, 아빠가 좋게 지내니까 아이들도 기분이 좋은가봐요.

T: 2주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까?

M: 있었지만 싸운 것은 아니고 그냥 언성만 올라간 거죠. 애들은 그게 싸우는 줄 알고 불안했나 봐요. 애들이 예민해요. 언제 한 번은 같이 가다가 애 아빠가 손을 어깨에 얹은 것을 보고서 민수가 서로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T: 요즘도 두 분이 따로 주무세요?

M: 같이 자요.

T: 두 분 사이에서 변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아직 민수 어머님께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덜 하시 는 것 같습니다.

M: 그냥 서로 신경을 쓰는 정도지 변화가 일어났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T: 민수 아버님은 민수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제 자신이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심했는데, 처음으로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때보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 처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 이상은 된 것 같고, 앞으로 하기 나름이죠.

T: 민수 어머니는 지금 민수 아버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 맞아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T: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관계가 작은 부분에서 변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들 입에서 엄마, 아빠가 “보기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M: 아이들 반응이 그러니까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 번 상담 이후로 부부간의 관계에 많은 변화가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과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 것 같다고 하지만,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T: 애들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따님과 아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M: 제가 남편에게 느끼는 것처럼 답답한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빠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잘하라고 말하는데 민옥이는 제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단절을 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애들하고 아빠하고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T: 애들은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자연스럽게 따라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변하라고 하기보다는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민수 어머님은 남편에 대해서 신경도 쓰시고 애정을 갖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부인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수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 맞아요. 다른 것들은 평범한 가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

소한 것에서도 서로 충족시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필요할 때 교수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M: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T: 두 분이서 다 하신 거예요. 저는 두 분이 의사소통 하시는데 중재역할만 한 거죠. 민수 어머니님은 민수 아버님이 일찍 들어오시면 긍정적인 표현을 하세요?

M: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일찍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T: 저는 뭔가 변화가 있어서 일찍 들어오신다고 봐요. 같은 표현이라도 좋게 하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죠.

M: 이제는 일찍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는 때가 지났죠.

T: 그러면 지금은 일찍 들어오셔도 안 좋으세요?

M: 그렇지는 않죠.

T: 민수 어머니께서 이왕이면 민수 아버지께 듣기 좋은 말로 표현 하시면 좋겠어요. 두 분이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죠. 최근에 포옹은 해보셨습니까?

M: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T: 성적인 욕구는 어떻게 하세요?

F: 그냥 지나치는 거죠. 잠자리는 같이 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예전에는 보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기대고 싶기도 해요. 계속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T: 특별히 성행위 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부인은 남편의 동의를 얻어 중절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남편은 부인에게 단지 농담조로 중절수술을 허락했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의 집안이 손이 귀한 집이라 부인은 자신이 중절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 두 사람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T: 그런데 민수 아버님이 부인에 대해 오해를 하신 것 같군요. 두 분 간에 의사소통이 분명치가 않았던 것 같군요.

F: 그런 것들이 많아요.

M: 저는 상대방 입장에서든 생각을 하는데, 애 아빠는 그런 것을 못해요.

T: 민수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대화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상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 관계가 안 좋으면 애들한테도 영향이 미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11회(1997. 8. 30), 내담자: 민수(C1), 민옥(C2), 어머니(M)

T: 민옥아, 요즘 집에서 아빠, 엄마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니?

C2: 사이 좋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한테만 먹을 것을 갖다주니까 샘이 나요. 우리한테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T: 민수는 아빠, 엄마 사이가 어떠신 것 같니?

C1: 얼마 전만 해도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별로 안 싸우는 것 같아요.

T: 언제부터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니?

C1: 몇 달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T: 민수 어머니도 변화를 느끼세요?

M: 애 아빠가 변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야기를 잘 들어 줘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미워도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게 큰 힘이 되요.

T: 미워하지도 않는 거네요?

M: 글썄요, 예전처럼 분하고 그런 기분은 없어요. 하여튼 남편이 부드럽게 나오니까 저도 그러는 거죠. 이런 게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상담에서 자녀로부터 아빠, 엄마 관계가 변했다는 것과 부인도 남편이 변하여 자신도 기분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두 사람간의 변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 화내는 것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요.

M: 집에서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던 사람이 여기 와서는 똑같은 이야기라도 고개 끄덕이고 듣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T: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M: 말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T: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집에서는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상대를 자극하는 거예요. 민수 어머니가 아무리 노력하셔도 상대가 안 받아주면 소용없어요.

12회(1997. 12. 20), 클라이언트: 민수 아버지, 어머니

T: 요즘 두 분의 관계는 어떠세요?

M: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요.

T: 민수 어머니는 남편이 어떻게 하시면 편하실 것 같으세요?

M: 저도 잘 몰랐어요. 털어놓으니까 속이 좀 후련하긴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보니 가장의 위치를 바라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가장’이지만 부인하고 동등한 위치가 되어서 둘이 항상 같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밖에서 생활하니까 너희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라. 그게 가정이라고 한계를 두는 거예요. 제가 같이 나누고 싶어해도 그게 안돼요. 자기와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 보니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어떤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외로웠어요.

T: 민수 아버님은 어떠세요?

F: 글썽요, 저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네요. 밖에서 월급을 타다가 쥐야 하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대신 안에서는 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M: 자기한테 고민이 있어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하고 얘기를 하지 저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만한 수준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죠.

F: 수준이라기 보다는 대화를 나눌만한 상대로 생각을 못한 거지.

M: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밖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해결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동등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신에게 속한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존중을 못해주는 거예요.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요. 저와 그런 것을 나눌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T: 아직도 민수 아버지께서는 부인하고 편안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F: 복잡한 것이지요. 저의 성격자체가 수용을 잘 못하고요, 민수 엄마가 화를 내면 그냥 외면해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물론 화를 내는 게 민수 엄마 잘못은 아니에요.

M: 맞아요, 모든 일에서 그래요.

T: 이렇게 해보시죠. 민수 아버님께서 민수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F: 많이 있죠. 이 사람은 성격이 직선적이라 부부 싸움할 때도 항상 이기려고 해요.

T: 최근 2주 동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M: 저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뭘지 생각해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맞지? 당신은 모를 거야.

T: 그럼, 이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무엇이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M: 근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어떤 게 달라졌나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왔고 제 남편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해소된 게 있어요. 변화된 것은 그것뿐이에요. 집에 있으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시하던지, 덮어버리던지 해서 전혀 제 얘기를 듣지 않는데 이 자리에서는 한 이야기만큼은 귀기울여 주니까 제 속에 있는 게 해소가 돼요. 여기 와서 하나 둘씩 꺼내니까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가벼워지니까 자기도 좀 나한테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뿐이지 핵심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T: 핵심은 뭐라고 생각해요?

M: 제 불만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도 나한테 털어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 친구들하고만 나뉘요. 나는 내 문제를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워요. 이 이가 밖에서는 착하고 노력형이지만 저한테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태만해요.

F: 요즘은 마음이 편한데.... 제 성격의 일부인 것 같아요. 간섭하거나 하면 벽을 만들어 버리는 편협한 모습이 제게 있어요. 회사에서 힘들게 오면 집에 와서 짜증도 나고 그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M: 가정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싫은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것을 상당히 과시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회사를 내세워 방패를 쳐요. 제가 회사생활을 안 해봐서 사회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교수님한테 상담하러 오는 것도 저한테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변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오는 식인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은 순화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남편에게 “당신하고 친구 같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민망할 정도로 웃었어요. 저는 그냥 이 사람에 속해 있어서 아이들의 엄마 역할만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이 아저씨는 밖에서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 부인하고 그런 것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나봐요. 같은 이야기도 내 말은 안 듣고 남이 하는 이야기는 들어요. 제가 바라는 근본적인 것은 서로 고민이나 생각을 나누고 싶다는 거죠.

T: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15년 동안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빠른 변화가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하는 것 같이 맥에서 할 수 없으면 효과가 없는 거죠. 민수 아버님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F: 사실 민수 엄마가 말한 게 맞아요. 근본은 바꿀 수 없는 거고, 그 과정은 저도 인식했으니까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절에 같이 가볼까 생각은 해 봤어요. 서로 속마음을 보여주고, 아플 때나 어려울 때 의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렵네요.

T: 민수 아버님이 지난 번 혼자 상담하러 오셨을 때는 예전에는 몰랐던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민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F: 느끼죠. 예전에는 벽이 너무 두꺼워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지금은 이야기를 스스로없이 할 수 있어요. 대화의 문은 열렸다고 봐요.

T: 민수 어머니는 어떠세요?

M: 저는 아직까지 하기 싫어요. 저 아저씨도 잘 못 해요. 근본적인 건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T: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마술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죠. 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두 분이 부부이지만 많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들을 통해서 표출되었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고 불안하대요.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든 엄마, 아빠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거든요.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그걸 더 가속화시키려면 민수 아버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직장 일을 조금씩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M: 여기서서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대화가 되는데, 집에서는 일단 심각한 이야기가 싫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편하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얘길 받아주질 못해요. 툭툭 쏘게 되고...

T: 그렇게 되면 민수 아버님도 이야기하려다가 그만두게 되요. 그러니까 사실 민수 아버님만 문제는 아닙니다. 알콜중독인 사람이 다음날 미안하다고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그냥 피해버리면 남편은 또 술을 먹게 되고 반복이 되요.

M: 맞아요.

### 13회(1998년 3월 13일), 내담자: 민수 어머니

(민수 어머니는 어제 민수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 말하였다.)

M: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사실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도 전화가 오면 “오늘 들어오지마, 그게 더 편해” 라고 뼈뼋하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기도 해요.

T: 민수 아버지께 무엇 때문에 집에 안 들어 왔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까?

M: 아니요.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해요.

T: 민수 어머니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오셨어요?

M: 왜 늦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바가지도 굶죠.

T: 최근에 상담하고 나서도 그런 적이 있으세요?

M: 네, 몇 번 있어요. 상담하고 나서 외박이 즐었던 것 같은데 서너 번 되는 것 같아요.

T: 여자 관계가 결부됐다고 보세요?

M: 한번은 못 들어온다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회식비는 없고 여관비는 있다고 했더니 동료를 위로하느라고 술을 마셨대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무슨 쪽지가 날아왔는데 보니까 봉사료 20만원이라고 카드 값이 나왔어요. 봉사료가 뭔가 해서 얘기를 하니깐 그때 사실대로 말을 하더라구요.

T: 그때 화가 많이 나셨겠습니까.

M: 아니요. 어떻게 갚는지 내버려뒀어요.

T: 요즘도 각각 별도로 방을 쓰세요?

M: 그게 편해요.

T: 그때는 같이 좀 주무신다더니...

M: 같이 자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밀어내요. 무조건 늦게 들어오면 문 탁 닫고 들어가고..

T: 민수 어머니가 민수 아버지의 긍정적인 면도 좀 인정해 주셔야지요. 민수 아버지 나름대로 애쓰고 있거든요.

M: 노력해야 되는데...

T: 민수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게 은연중에 작용하는 거예요. 익숙하니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내 남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길 원하는가? 그런 게 없으면 상담이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M: 그러네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T: 민수 아버지는 정에 굶주렸고 가정을 잘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나마 배출구가 친구들하고 만나고 술 먹는 거죠. 어렸을 때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M: 저는 남편이 철이 없나보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인가요?

T: 민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걸 생각 못하시고 나한테 나오는 반응이 무시라고만 생각하면 그와 맞선 방식만 나가게 되는 거죠. 민수 아버지는 무시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진실된 이야기예요.

M: 그래요. 맞아요.

T: 민수 아버님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내한테 하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과는 웃으면서 대화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M: 많아요.

T: 민수 아버지는 여기 와서 처음 하신 말이 15년 동안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지금에서야 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변하려고 하는데 집에 와보면 민수 머님은 변하지 않

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예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민수 어머니는 대화할 때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옆으로 피하거든요. 남편은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하길 원하는 데 눈을 피하세요. 그럼 남편입장에서 보면 부인이 나를 지금 거부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문제는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바뀌야 돼요.

M: 큰 숙제예요. 저에게 굉장한 능력을 요구해요.

T: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해보세요. 남편도 당황하게 될 겁니다. 한 번 바꿔보세요. 그게 위선적인 것 같지만 통할 것입니다.

M: 마음에도 없는 가면을 써야 되는데요.

T: 그러면 민수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요. 그러면 민수 어머니도 바뀌실 거예요.

#### 14회(1998년 4월 30일), 클라이언트: 민수어머니

(민수 어머니가 민수가 최근에 그린 가족 그림을 가져옴)

T: 1년 전에 그린 그림과 지금의 그림을 비교해 볼 때 무슨 차이를 느끼세요? 엄마하고 아빠의 거리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아빠 옆에 있죠? 1년 전에는 주무시는 모습이 많았어요. 저는 애들이 느끼는 변화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의 주관적 해석이 되겠지만 엄마의 모습이 활동적으로 바뀌었어요. (1년 전에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1년 전) 모습은 민옥이는 엄마와, 민수는 아빠와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현재) 그림은 민수가 엄마와 아빠가 더 가까워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즉,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가장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감을 가진 관계로 변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들은 애들하고 밀착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T: 요즘 아빠와 애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M: 예뻐하기는 해요. 저한테도 부드럽게 대하고 그래요.

T: 현재 남편하고 대화는 어떠세요?

M: 위선적인 대화는 하죠.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딴고 화가 나는 건 없어졌어요.

T: 1년 전에 민수가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아 두렵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혼 이야기는 안 해요. 민옥이도 예전에는 아빠가 들어오면 불안하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애들이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학교생활을 더 잘하는 걸 보면요. 1년 전에는 수전증이랄지, 땀이 나는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M: 요즘엔 기침을 하고 담배를 피워요. 회사가 힘들어서 주위에서 많이 해고 당하나봐요. 그래도 전 아무리 힘들어도 그이는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T: 지금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M: 가끔 한마디씩 하면 느낌으로 아는 거죠.

T: 민수 어머니께서는 상담을 하시러 오실 때는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M: 처음에는 같이 오는 게 불안했는데 의외로 애 아빠가 같이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해석을 다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솔직히 가기가 싫었어요. 뭔가 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해야한다는 게 싫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사는 게 재미있고 종이접기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애 아빠도 종이접은 것을 보고는 괜찮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는 하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 집에 가는데 그것을 하나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애 아빠도 저도 많이 변하고 달라졌어요.

여기서 민수 어머니가 자신과 남편이 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였다.

### 15회(1998년 5월 23일), 클라이언트: 민수 아버지, 어머니

T: 요즘 두 분의 관계는 어떠신지요?

F: 고맙습니다. 뭐 아직도 그렇죠. 상황에 따라 소리지르는 건 여전하지만 금방 풀게되고 괜찮습니다.

T: 이 상담을 두 분께서 더 지속되길 원하시는 건지.

F: 와서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선생님을 찾아보면 되니까요.

T: 민수가 그린 그림을 보면 아빠, 엄마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민욱이한테도 “요즘 아빠, 엄마 관계가 어떠시니?”라고 물어 봤더니 “좋아요” 그리고 “요즘 아빠가 밤에 집에 들어오시면 불안하지 않니?”라고 물어 봤더니 “왜 불안해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림 설명) 1년 전 그림이었습니다. 아빠는 바나나 먹고 있는데 달라고 조르는 모습이지요. 민욱이는 화가 나서 뿔로통한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피하는 모습이 잠자는 거예요. 이건 컴퓨터를 하는데 민수가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평안함보다는 불안, 긴장,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1년 후 상담으로 인하여 그림(최근에 그린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민수의 눈에 비춰진 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신발이 정리정돈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집이 전보다는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마 위치가 주무셨던 모습이 활동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엄마, 아빠 거리가 가까워 졌어요. (이전 그림을 보며) 여기서는 엄마-아빠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엄마-아빠 관계가 웃고 대화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밀착되어 가는 관계로 된 거죠. 엄마-아빠 관계가 좋으면 애들의 관계도 좋아요.

F: 글썽요. 민수 엄마하고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해소가 됐다고 봐요. 잠자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요.

M: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면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운다고 놀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누구 앞에서든 눈물 보이는 게 싫어요.

F: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국민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큰 곳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웃고 야유를 보냈어요. 그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 후로 대인공포증, 즉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말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는데 지금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T: 제 나름대로 유추 해석하자면 민수 어머니 나름대로 노력을 시도하신 것 같은데,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닫혀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몇 번 시도하다보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그 면에서는 마음이 닫혀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애들이 1년 전하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애들이 여기 와있는데 들어오라고 할까요?

이것으로 총 15회 진행되어 온 상담이 종결되었으며, 그 동안 간혹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어머니와 몇 번의 전화통화가 있었으며, 상담이 종료된 1년 후인 1999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민수 어머니가 직접 만든 종이꽃으로 만든 액자를 치료사에게 선물을 보내왔다.